



사진기사의 땅 기

### “여보, 힘들지!”

양동 시장을 돌아다니다 흔치 않은 광경을 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 이 부인의 발을 매만지고 있더군요. 얼마나 부부 급습이 좋길래, “중으시겠어요?”라고 했더니, 굳은 살을 얹어주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인은 “비싼 돈 들이는데 보내주기 싫으니까 그러지”라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러면서도 싫지 않은 듯 환하게 웃습니다.

남남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 매일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돈 문제로, 부모와 자녀문제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삽니까.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다정하게 보일지라도 갈등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 갈등을 풀이 함께 이겨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기심을 버리고 맞춰 살면서 말입니다. ‘땀아간다’는 소리, 그래서 듣는 것 아닐까요.

“겉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위하고 아껴주라”는 뻘한 주례사, 잊혀지기도 전에 미련없이 갈라서는 사람들 무척 많아졌습니다.

힘든 세월, 변함없이 옆에서 지켜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속스러워 못했으면 오늘 용기를 내는 건 어떨까요. 별어 먹고 사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해진 부인의 발, 지긋이 만져주세요. 발상부터 달라질 걸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뉴스퀴즈 69·70회 백정숙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69·70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백정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백씨는 2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69·70회 뉴스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58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백정숙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김재남 경사가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백정숙·순천시 금곡동  
2등 ▲박상현·광주시 동구 자산동

### 뉴스퀴즈

71. '리이언 킹'으로 불리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 선수가 일본 통산 100호 홈런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일 히로시마와의 경기 2회 첫 타석에서 우측 펜스를 시원하게 넘어가는 2점 이치를 그렸습니다.

지난 2004년 일본 무대에 진출한 뒤 3년 6개월, 432경기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프로야구 역대 선수로는 250번째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이승엽 ②이종범 ③김동주 ④이대호

###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오늘의 유머

#### ■ 양다리 걸친 남자의 고민

회사 옥실에서 철수와 동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네, 요즘 미스 리하고 미스 최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응, 사실이야. 하지만 요즘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

“왜? 아하! 최종적으로 누굴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군.”

“그게 아니라 나머지 다리 하나는 누구한테 걸칠까 하고 말이야.”

#### ■ 남편의 유언

남편이 오늘 내일 하자 부인이 고문 변호사를

불러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

부인 : 여보! 변호사님이 왔어요. 남에게 꾸어준 돈 액수와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 : 응, 팔복이에게 8천만원.

부인 : 네, 그러구요.

남편 : 봉수에게는 1억원.

부인 : 아니, 어쩔 거여력이 이렇게도 총총하십니까?

남편 : 여보!

부인 : 네, 어서 말씀하세요.

남편 : 그리고 북태에게는 3억원을 꾸었소!

부인 : 어머니! 이이가 이런 의식이 없어서 헛소리를 다 하시네.

■ 오리

황금 오리 : 안정적인 여자, 바로 공무원이나 교사 등 전문직 여자들을 말한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청동 오리 : 학습지 교사 등 돌아다니며 돈버

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여자.

미운 오리 : 돈을 못벌어도 그냥 집에서 현모양처와 같이 살림에 열심하는 여자.

탐관 오리 : 돈을 못벌지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돈만 쓰고 엉뚱한 짓하고 다니는 여자. 백성혈세를 빼먹듯 남편 돈을 빼먹는다고 해서.

아사 가오리 : 돈을 많이 벌여 유산 많이 남겨놓고 죽은 황금오리 여자.

■ 착각의 늪

남자들 - 못 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 -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게 되면 관심 있어 따라 오는 줄 안다.

피마들 -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 -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대학생들 - 철 다 든 줄 안다.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될 줄 안다.

부모들 -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육군 병장 - 자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아기씨들 -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될 줄 안다.

아줌마 -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연애하는 남녀 -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시아머니 -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

장인 장모 - 사위들은 처가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회사 사장 - 종업원들은 쪼면 더 열심히 일하는 줄 안다.

아내 -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 없는 줄 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팔리고 집금 되는 줄 안다.

남편 -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음 5월 19일 戊戌)

子	36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격을 베풀어라. 48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목이 된다. 60년생 다툼은 손에 양보하면 득이 된다. 72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4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22, 42
丑	37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니 티내지는 말라. 49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신의 희망이다. 61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답을 잘하라. 73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5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09, 39
寅	38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0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62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4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10, 30
卯	39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51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워라. 63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라. 75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34, 35
辰	40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52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64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와 친구가 많으리라. 76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24, 45
巳	41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3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5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77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16, 27
午	42년생 이랑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54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라. 66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8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32, 44
未	43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55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실수가 생기리라. 67년생 바뀌었던 것은 모두 조심히 하라. 79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17, 28
申	44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얽매어지는 말아야 한다. 56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8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80년생 정도를 절으면 행운이 따라. 행운의 숫자: 18, 40
酉	45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 가 있을 수 있다. 57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것부터 잘하라. 69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81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해야 대안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03, 43
戌	46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주는 많은 이가 따르리라. 58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버려라 손재가 크다. 70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82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13, 23
亥	47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항하라. 59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71년생 돈은 생기니 소비가 크다. 83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05, 26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원원약품 062-383-5883

###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점점 벌어지는 차이 6보(117~161)

白 박명수 5단 (능협)      黑 이창준 5단 ((주)송림)

전보에서 백 대마의 연결에 급급하다가 우하변 일대에 60여집이나 되는 너무 큰 실리를 허용하고 만 것이 뼈아픈 장면이다. 이제 집으로는 도저히 추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도 박명수 5단은 분노를 삭이며 백으로 은근히 위쪽 흑 대마의 얽음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창준 5단이 슬쩍 117로 꼬부리자 118의 수비가 필요하여 트집을 잡을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

백 122로 끝까지 약점을 노려보고 있으나 흑 123이 또 알미수 수비로 끝내기를 견고하고 있다. 이렇게 집이 차이가 많이 나면 백은 갈수록 무리수를 두게 마련이다. 흑 127을 받을 틈이 없어 133까지 맞아서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백 140으로 끊어 본 것은 마지막 희망인데 이창준 5단이 중앙 3점을 순순히 포기하며 153으로 좌변으로 달려가자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쉽게 버리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쪽의 특권이다.

이창준 5단의 철통같은 수비와 적절한 변신으로 161에 이르러서는 흑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 바둑소식

#### 박승철, 신예연승전 2연승

박승철 5단이 지난 1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에서 김은선 3단과 박지연 초단을 잇따라 꺾고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박 5단은 다음 대국에서 주형욱 4단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만 25세, 5단 이하 기사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예선을 통과한 25명의 기사가 본선에서 연승전을 펼친다. 2연승 이상 성적을 거두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3연승을 넘기면 연승상품을 확보한다. 3연승할 경우 100만원,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굿모닝 잉글리쉬 <939>

#### Here's my business card.

여기, 저의 명함입니다.

A: I don't have an appointment, but it's rather urgent. Would it be possible to see Mr. Lee?  
B: I'm afraid he's not in at the moment. Do you have a business card I could show him?  
A: Yes, here's my business card. Will you ask him to call me? I'll be in my office waiting for his call.  
B: Yes, I will.

A: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좀 급한 일인데, 이 선생님을 만나 볼 수 있을까요?  
B: 어쨌죠, 지금 그분이 안 계시네요. 명함 있으세요? 제가 그분께 보여드릴게요.  
A: 네, 이게 저의 명함입니다. 그분께 말 좀 해 주실래요, 저한테 전화 좀 달라구요. 제 사무실에서 그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B: 네, 알겠습니다.

\* Would it be possible? Is it possible?보다 더 공손한 표현.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 오하오우 니혼고 <939>

#### 社内で一躍(いちやく)株(かぶ)が(あ)がりますね。

사내에서 일약 주가가 오르겠군요.

A: 今度のプロジェクトは北野(きたの)さんの案(あん)が採用(さいよう)される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よ。  
B: ぶ議(ぎ)がいきで決定(けつてい)したんですね。  
A: ええ、北野(きたの)さん徹夜(てつや)までして頑張(がんば)っていましたからね。  
B: 社内(しゃい)で一躍(いちやく)株(かぶ)が上(あ)がりますね。

A: 이번 프로젝트는 키타노씨의 안이 채용되는 것으로 되었고 합니다.  
B: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A: 에에, 키타노씨 철야까지 하며 분발했으니까~  
B: 사내에서 일약 주가가 오르겠군요.

採用(さいよう)される: 채용되다  
ことになる: ~하게 되다  
株(かぶ)が上(あ)がる: 주가가 오르다  
決定(けつてい)する: 결정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 니하오 쑹구위 <129>

#### 你吃过什么好吃的菜

당신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보셨나요

A: 中国有很多好吃的菜。  
Zhōngguó yǒu hěnduō hǎochī de cài.  
중-국-에-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D: 你吃过什么好吃的菜。  
Nǐ chī guo shénme hǎochī de cài.  
니-는-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 보-셨-습니까?  
A: 我吃过广东的海鲜, 云南的米线, 四川的小吃。  
Wǒ chī guo Guāngdōng de hǎixiān, Yúnnán de mǐxiàn, Sìchuan de xiǎochī.  
저-는- 중-국-의- 해-산-물, 운-남-의- 미-선, 사-천-의- 관-동-요리를- 먹-어- 보-였습니다.  
B: 你去过那么多地方?  
Nǐ qù guo nàme duō dìfāng?  
니-는- 그-렇게- 많-은- 곳-을- 갔-었-습니까?  
A: 广东的海鲜 [Guāngdōng de hǎixiān]      평동의 해산물  
云南的米线 [Yúnnán de mǐxiàn]      운남의 미선국수  
四川的小吃 [Sìchuan de xiǎochī]      사천의 관동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8

### 한자 이야기 <556>

#### 百年河清(백년하청)

일백 백, 해 년, 강이름, 하, 맑을 청

백년하청(百年河清)은 백 년을 기다려도 황하(黄河)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비유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을 한중없이 기다리는 것을 비유한다.

고사의 배경은 춘추 시대 중반 주(周)나라 영왕(靈王) 7년(B.C. 565)이다. 정(鄭)나라는 초(楚)나라의 속국인 채(蔡)나라를 공격한 것이 화근이 되어 초(楚)나라의 보복을 받는 위기에 처했다. 신하들이 대책회의를 하여 초나라에 항복하자자는 화친론(和親論)과 진(晉)나라의 구원병을 맞이하여 싸우자는 주진론(主戰論)으로 나뉘었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대부인 자사(子驪)가 말했다. “주나라 시(詩)에 ‘황하의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 해도 인간의 짧은 수명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진나라 구원병을 기다리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清)’일 뿐이요, 그러니 일단 초나라에 복종하여 백성들의 불안을 씻어 주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정나라는 초나라와 화친을 맺고 위기를 모면했다. 황하에 손을 담가보니, 텅텅한 진흙물 아래 진흙반죽처럼 엉긴 침전물이 만져졌다. 백년이 아니라 천년이상 된 듯 묵직한 느낌이였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